

흡연세뇌 2



후후후...
지금쯤이면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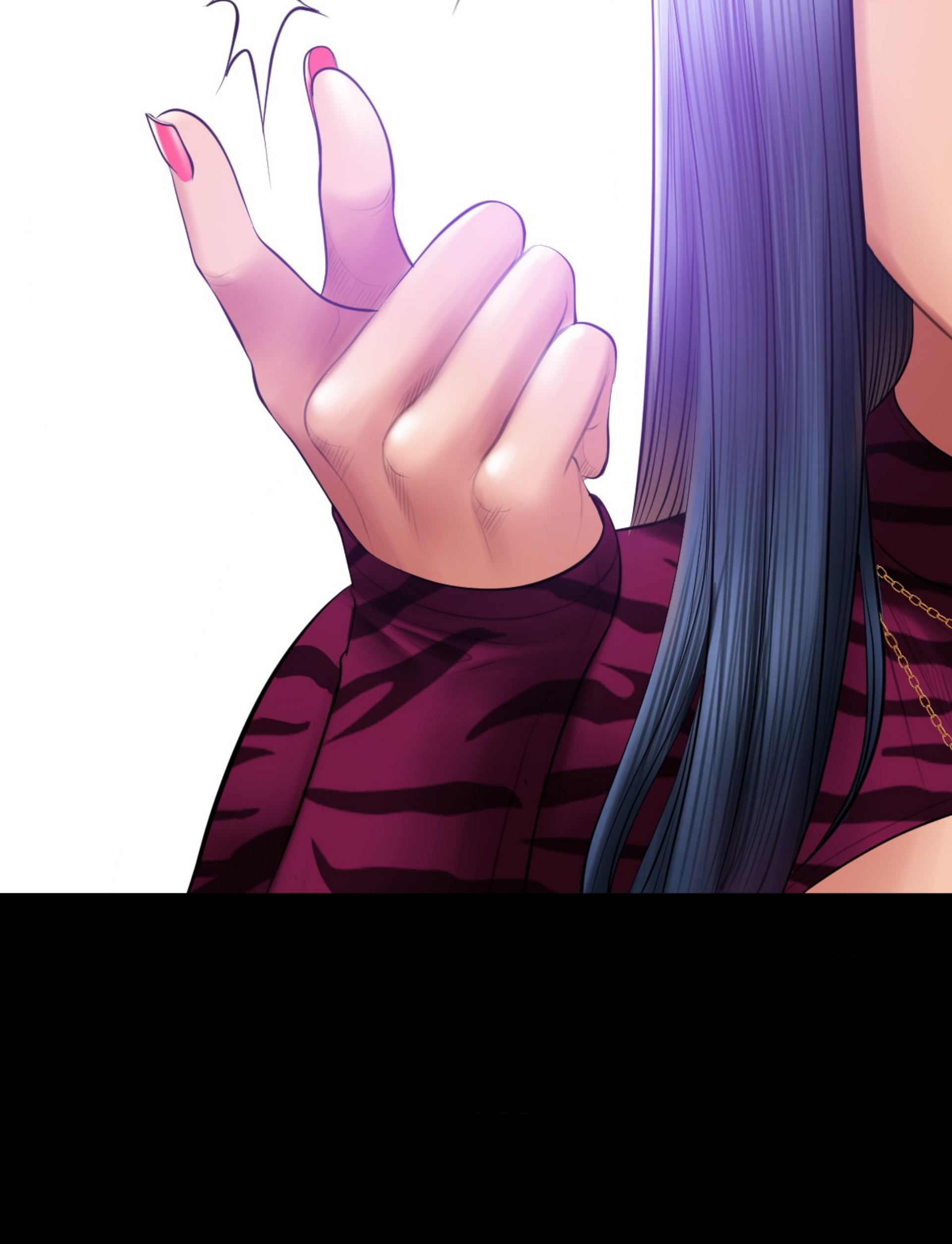
완전히
트랜스상태에
빠졌겠지?

.....

이제부터 당신은,
이야기 속의
음탕한 유부녀와 하나가
될 거예요.

내가
들려주는
이야기가...

마치 당신의
경험인 것처럼
깊게 몰입하게
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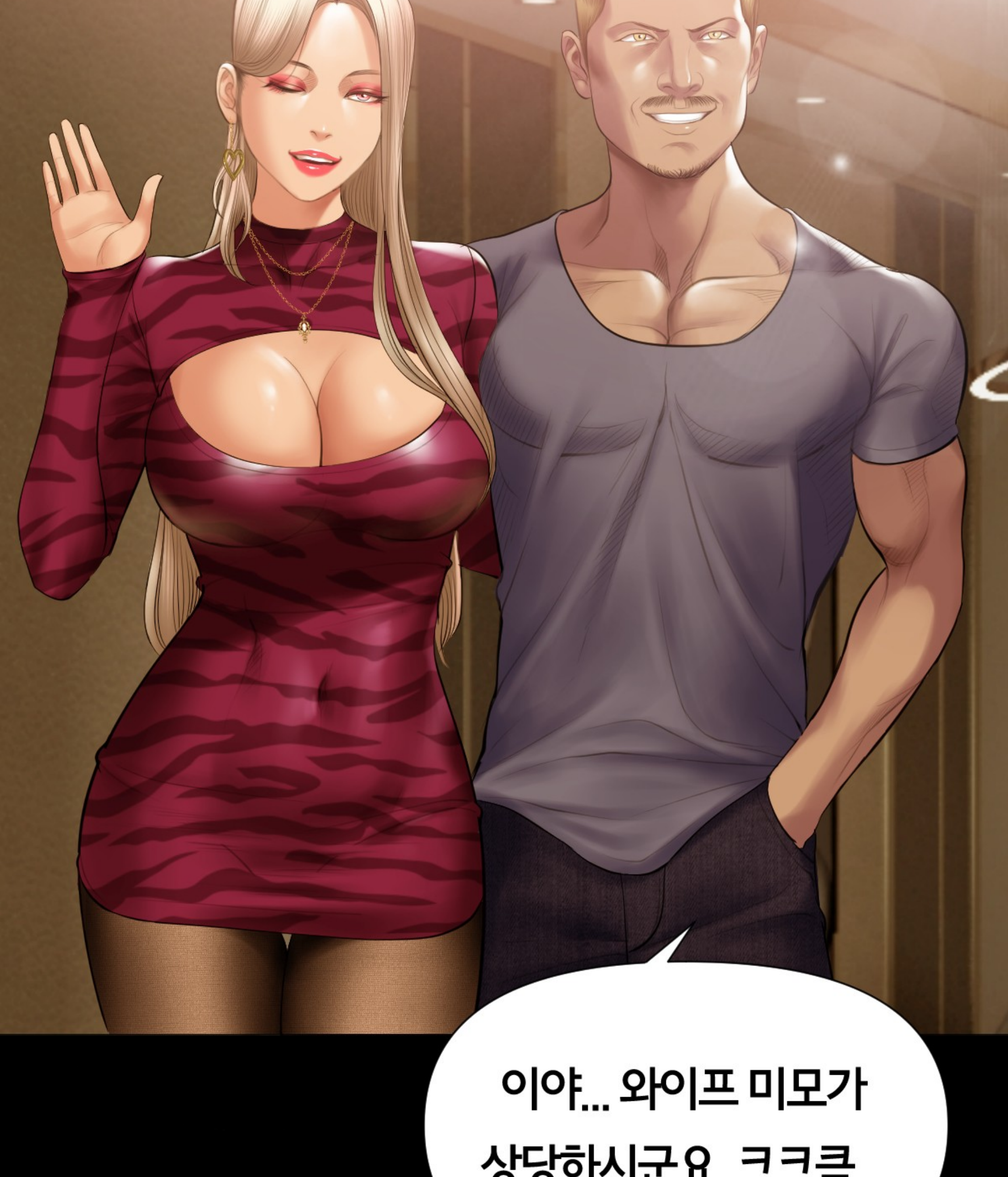


여보! 옆집 분들이
인사를 오셨네.
잠깐 차라도 대접할까?



...?!

잘 부탁해요. 언니.



이야... 와이프 미모가
상당하시군요. ㅋㅋㅋ...



..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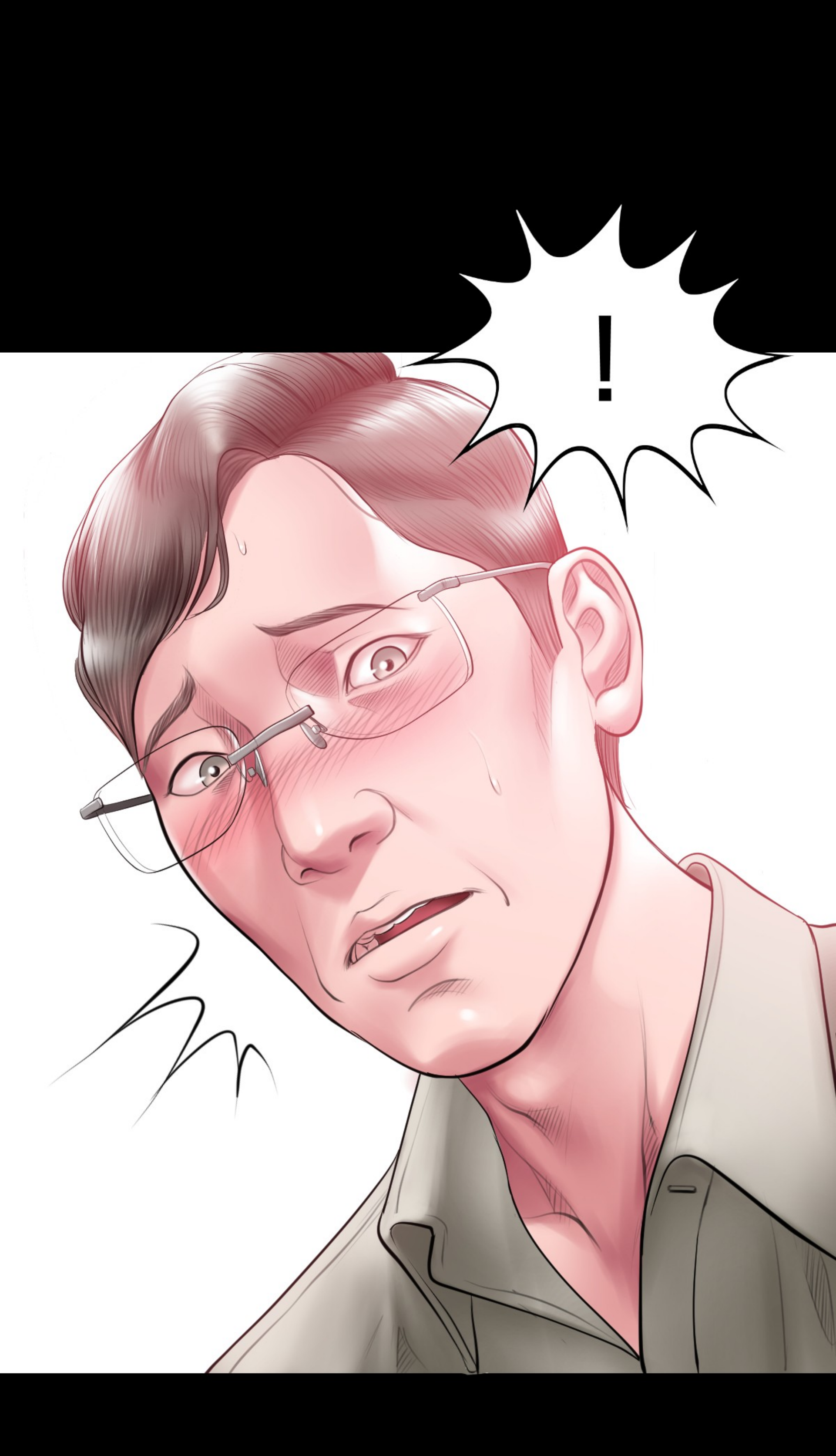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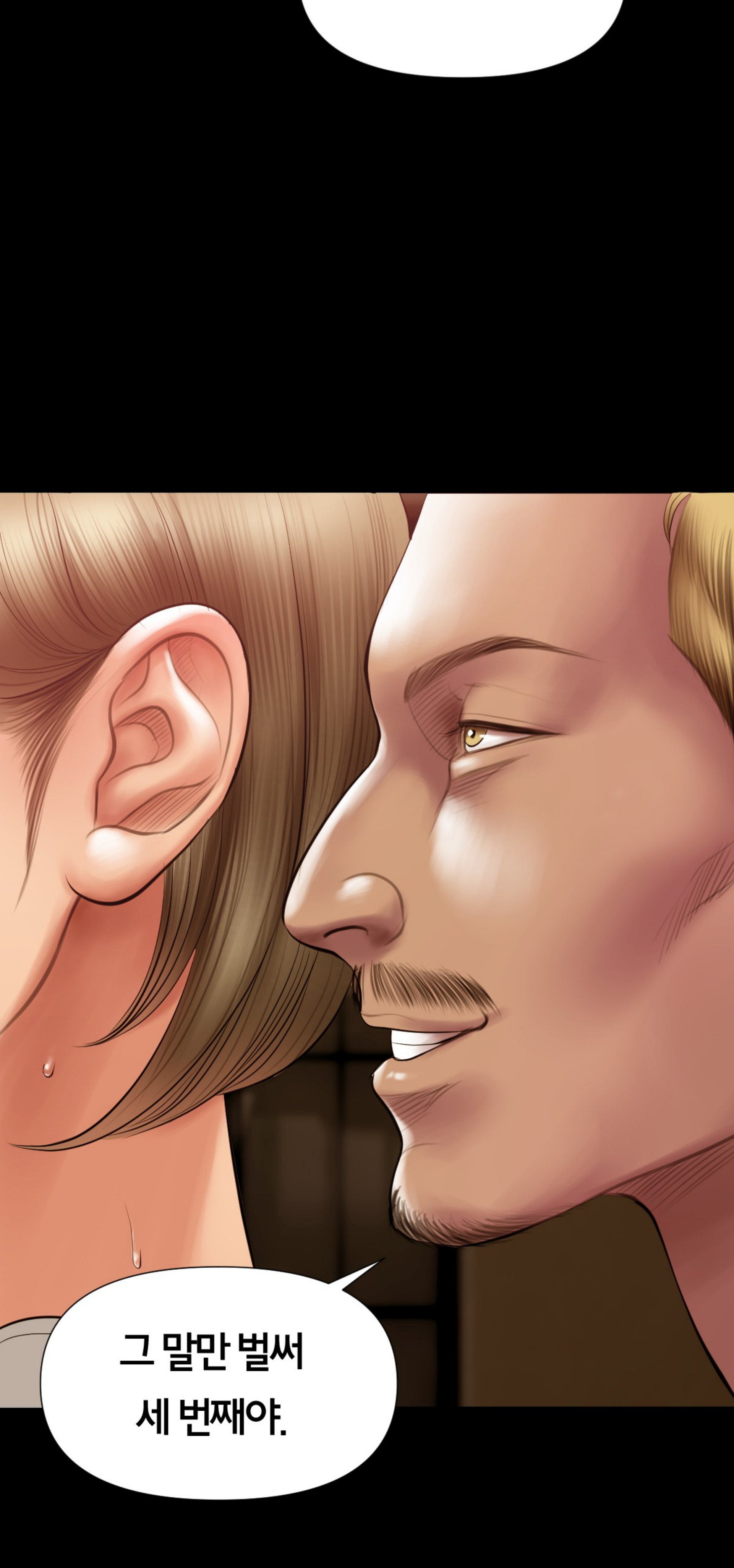
어머!
경찰이셨구나!
완전 멋지다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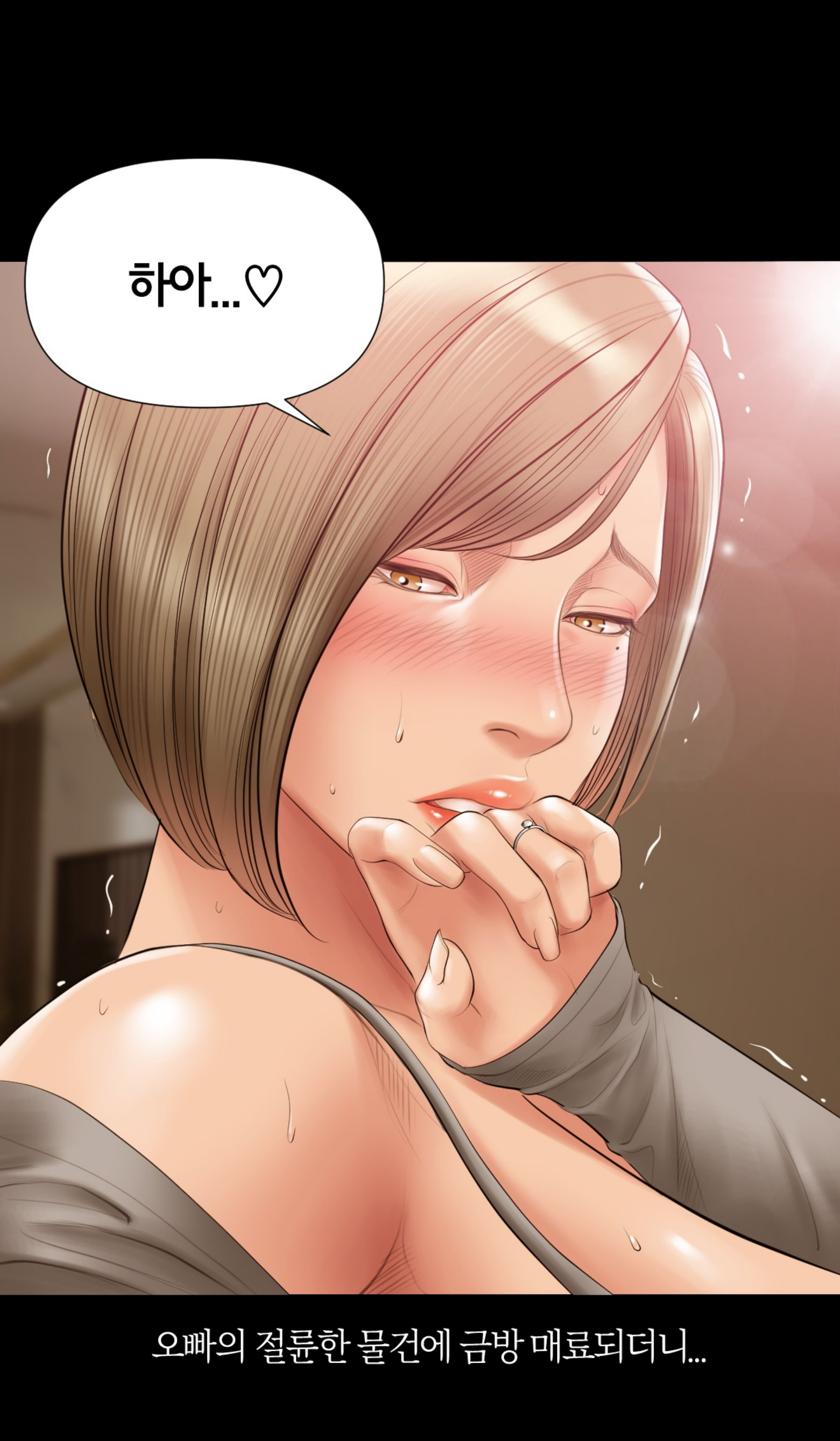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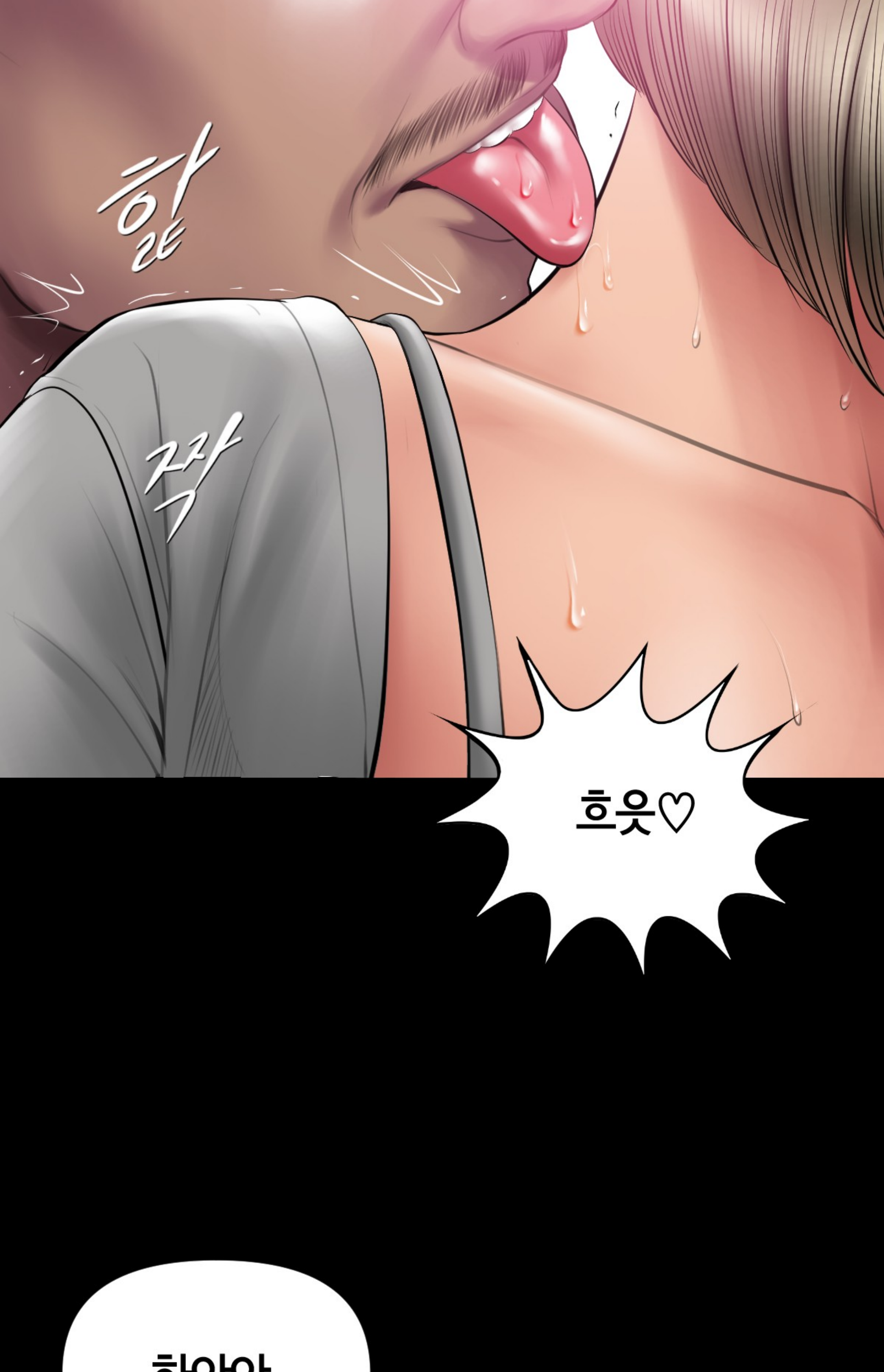
하하...
감사합니다.



어쩐지...







이, 이러면...

안 되는데...♡

우웬....

아... 아가씨...

이....

이건 좀 곤란...

하
아
앙♡

?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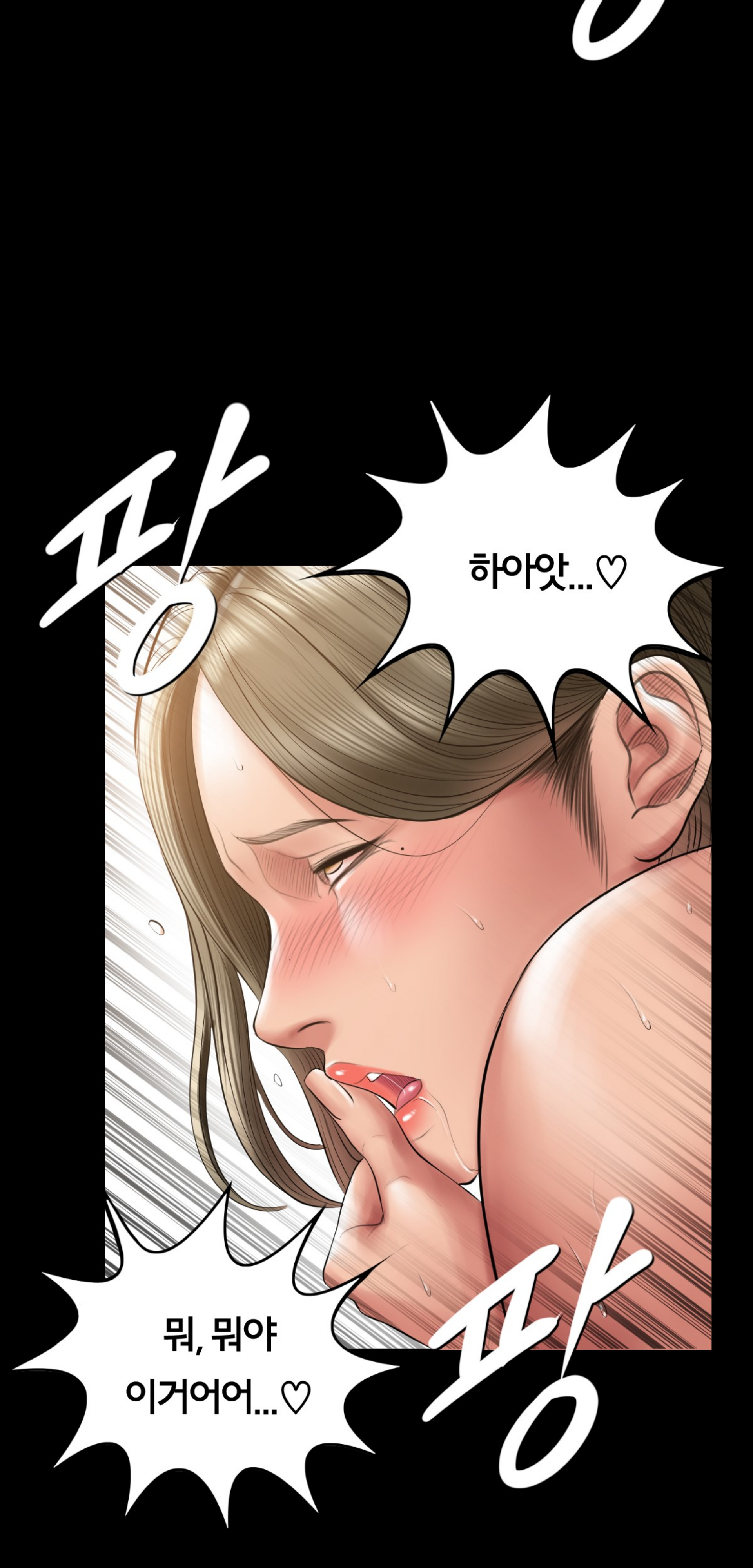




ㅋㅋㅋ!
어때?



부실한 남편 자지랑은
차원이 다르지?



하아앗...♡

뭐, 뭐야
이거어어...♡



으흐으웃♡♡

미,
미칠 거 같아♡

나중엔 자기가 더 좋아서 안달이었죠.



하아아앗♡



후응♡



나,
나 어떡해애....♡



아, 안쪽까지.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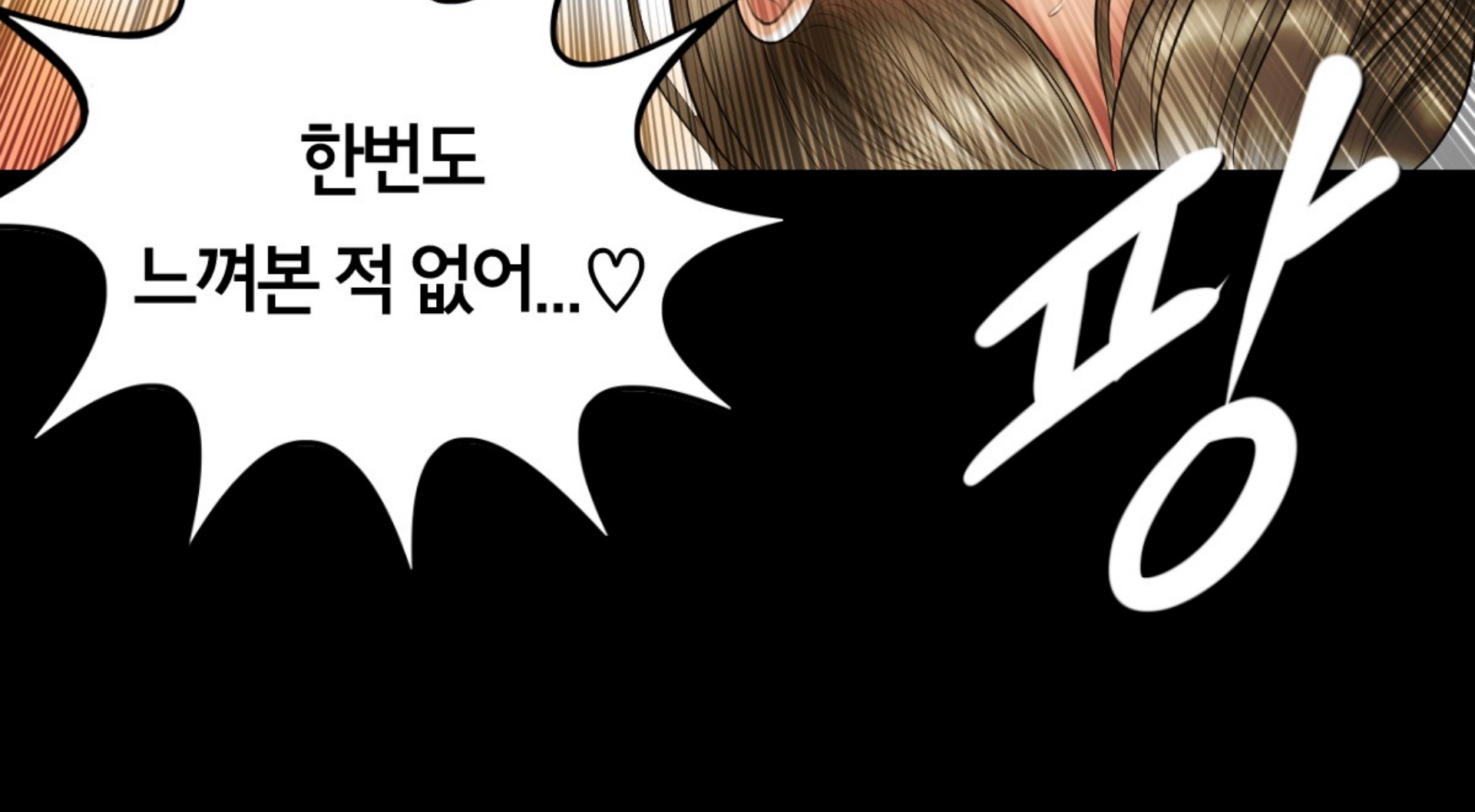
너무
깊숙해애...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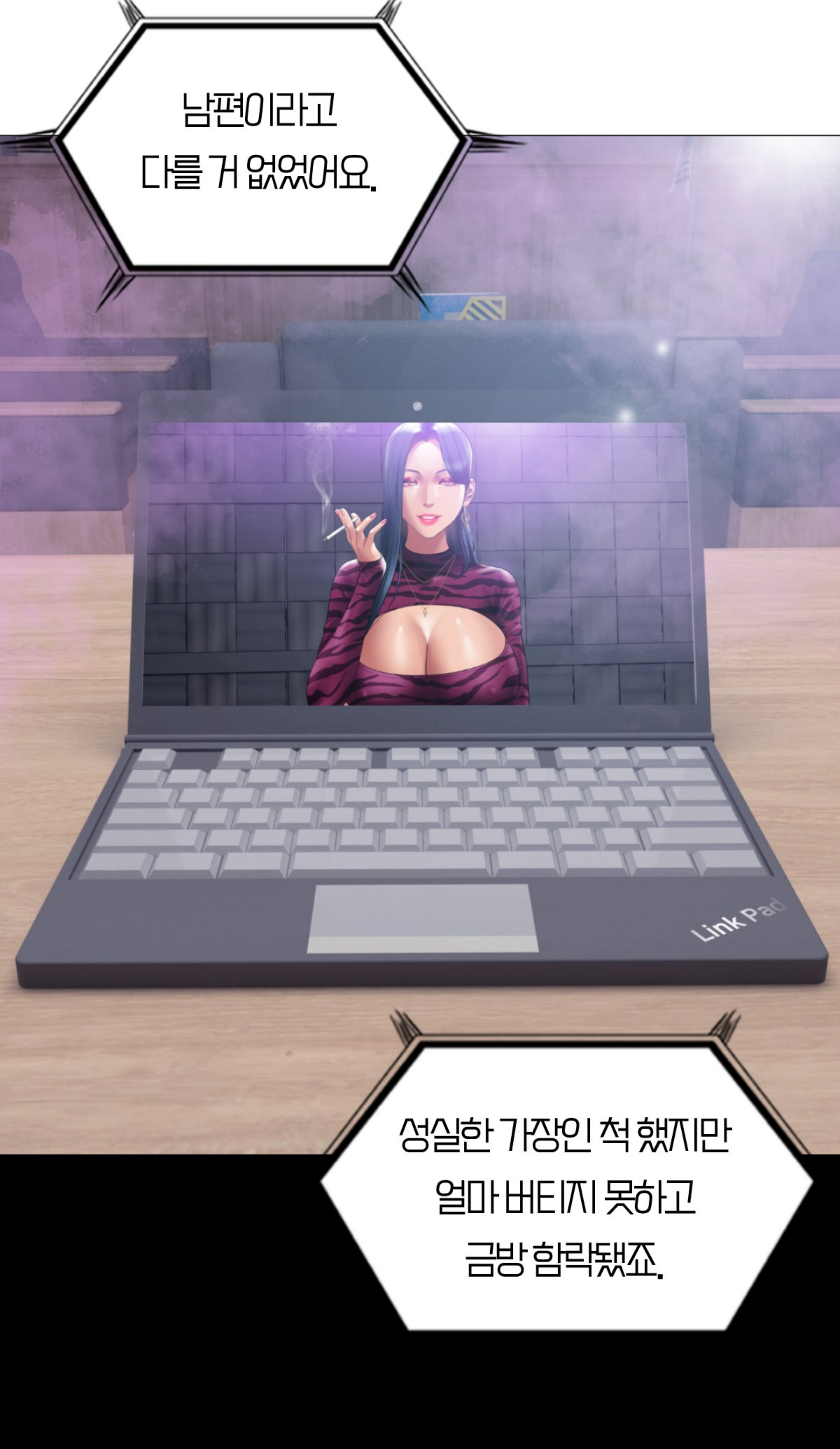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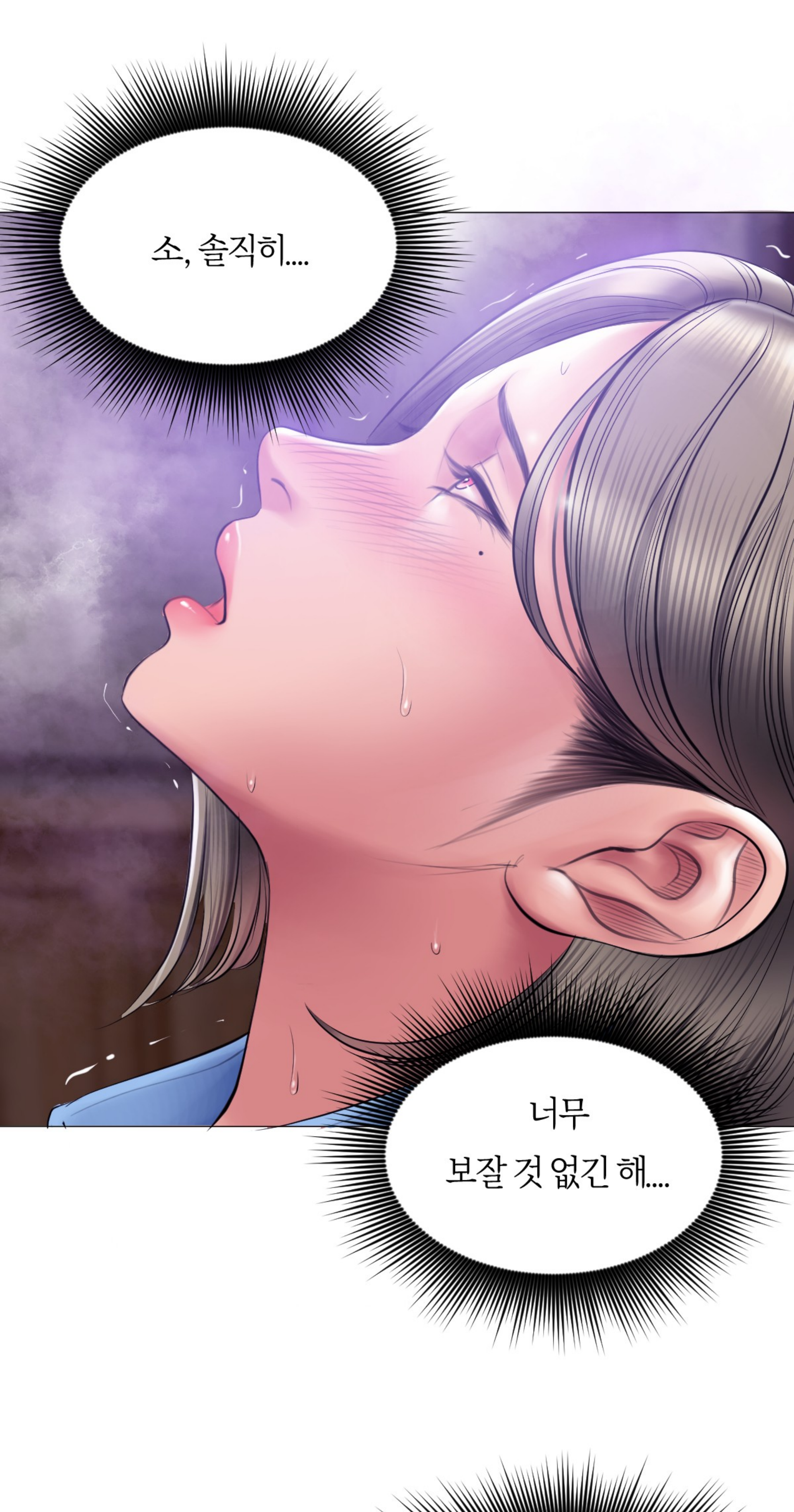
이, 이런 거...



한번도
느껴본 적 없어...♡









이거... 하루 종일
입고 있던 건데.



땀과 애액에
절여져 암컷 페로몬향이
가득하게 배인 팬티...

당신같은 변태들에겐
최상등품이죠?



하아...

하아...



으윽?!

과

악



후후후...
요 양증맞은 꼬추.

달달

달달

넣고 싶어서
바들거리는 것 좀 봐?
푼♡

ooo...



더, 더는
못 참겠어...

애간장
그만 태우고.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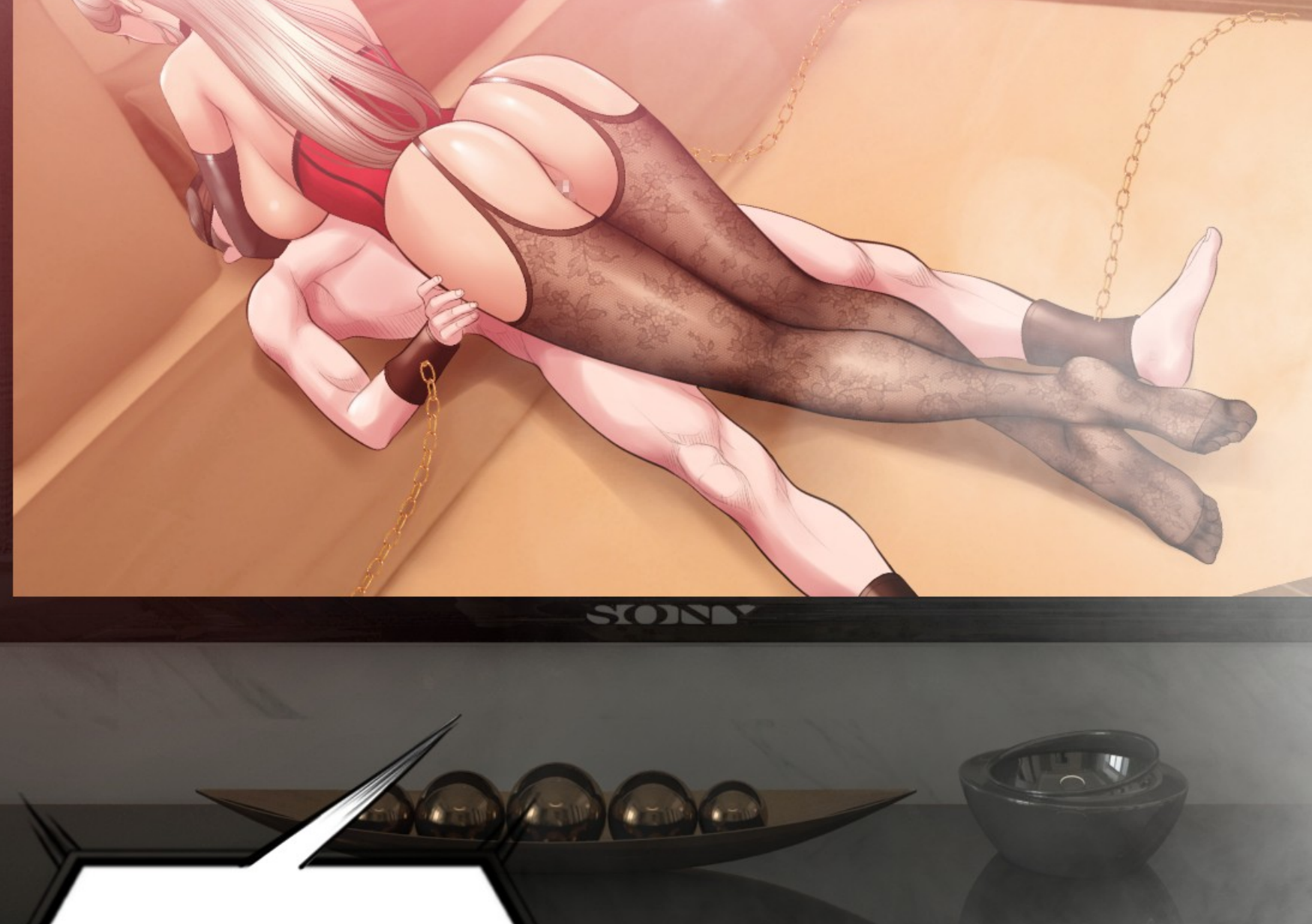
넣게 해줘...
제발...!

크크크... 전에는
절대 아내를 배신할 수
없다고 하더니,



진짜 형편없는
아저씨네?

뭐... 이해해요. 나이든
아줌마보단



싱싱한 여대생
보지가 훨씬 끌리겠쥬.

아아...
세상에...

마,
말도 안 돼...

봤지? 어제 네가
출근했을 때
일어난 일이야.

고작 저 정도 밖에
안 되는 인간이라고.

그러니까 너도
죄책감 따위 가질
필요 없어.

네 쾌락에만
집중해.

쓸데없는 윤리의식 따위
집어치우고...

하아아...

결국 단란했던 부부는 졸지에 스와핑에 환장한 변태들로 전락했어요.



그뒤로 두 사람은 절대 서로 몸을 섞지 않아요.



지루한 결혼제도에
얽매여 있던 부부는
이제야 진정한 행복을
깨닫게 되었죠.

아으응♡
이 배신자 새끼...

저, 절대 용서
못해애애.....♡

